

강원도

춘천, 닭갈비촌 진입도로 6월말 준공

강원 춘천시 온의동 닭갈비촌 진입도로 등 주요 도심을 연결하는 도로 확장 공사가 이달 말 준공돼 도심 연결 교통망이 개선된다.

춘천시는 온의동 닭갈비촌 진입도로 확장 공사를 이달 말 준공할 예정이라고 지난 5월 29일 밝혔다. 이 도로는 시외버스터미널 경춘도로에서 닭갈비촌 진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400m 구간이 폭 25~35m로 확장된다.

경춘도로에서 진입하는 구간은 35m로, 상가 구간은 25m로 각각 확장된다.

현재 35m 구간은 공사를 마친 상태이며, 25m 구간 240m는 확장 공사와 함께 전선지중화가 함께 이뤄진다.

시는 6월 중반까지 지중화 공사를 마치도록 해 6월 말 준공할 계획이며 이번 공사가 준공되면 상가 활성화 뿐 아니라 주변 주택가 차량 통행 편의도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남부사거리~약사리 고개 간 남부로 확장 공사도 6월 말 준공돼 폭 35m 6차로가 새롭게 선보인다.

충청북도

음성, 가축사육제한지역 완화

충북 음성군은 생활환경 보전과 보건 향상을 위해 가축사육을 제한하기로 하고 당초보다 다소 완화된 관련 조례안을 다시 입법예고했다.

군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사육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은 '음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5월 29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 1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소, 돼지, 말, 닭, 젓소, 오리, 양, 사슴, 개 등 9종을 사육 제한 대상 가축으로 규정했고 당초 입법예고 조례안보다 사육 제한지역 범위 등을 완화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 4월 이 조례안을 입법예고했고 이에 대한 많은 주민의 의견이 접수돼 이를 검토해 다시 입법예고했다"며 "이번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이 이번에 입법예고한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다음과 같다.

<절대제한지역>

▲축사(부지)와의 직선거리(이하 같음) 200m(당초 300m·이하 같음) 이내는 소, 젓소, 말, 사슴, 양 ▲300m(500m) 이내는 닭, 오리 ▲800m(1,000m) 이내는 돼지, 개

<7(5)가구 이상 주거시설이 있는 주거 밀집지역>

▲주택(부지)과 축사(부지)와의 직선거리(이하 같음) 200m(300m) 이내는 소, 젓소, 말, 사슴, 양 ▲300m(500m) 이내는 닭, 오리 ▲800m(1,000m) 이내는 돼지, 개

남부 3개군, 오는 18일까지 가축 통계조사 실시

충청지방통계청 옥천사무소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6월 18일까지 충북 영동·옥천·보은군 내 한우, 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 동향 조사를 실시한다.

옥천사무소는 축산물 수급안정대책 등 축산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키 위해 매분기별(3, 6, 9, 12월)로 1회씩 표본 및 전수농가를 방문해 면접 청취 조사를 하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조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9조에 의해 개인농가별 조사 내용의 비밀이 엄격히 보장되고 통계 목적 이외에는 이용되지 않으므로 축산농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상북도

의령군,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추진

경상북도 의령군은 축산농가가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억8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관내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고, 축산업 등록을 필한 농가(소, 돼지, 닭)와 축산업 등록을 할 수 없는 기타가축(메추리, 사슴, 꿩 등) 농가이고, 지원비율은 작년에 이어 가입비의 75%이다.

보험 가입금액과 보험요율은 가입자 자율로 결정하고 가입기간은 1년 또는 월단위로 의령축협,

부산경남양돈우유조합, 농협중앙회 의령군지부, 의령농협, 동부농협 등에 연중 수시로 자부담금인 가입비의 25%를 내면 가입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가축재해보험 가입자가 많을 경우 사업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할 계획이어서 가입을 원하는 축산농가는 보험 가입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라남도

우리 고유 재래닭 순수혈통 복원

전남도 축산기술연구소 축산시험장은 산업화에 따른 멸종위기 재래종 닭의 혈통고정을 위해 수집 증식선발을 통해 우리 고유의 재래닭 특성을 살린 순수계통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래닭은 우리나라 고유의 품종으로 깃털색에 따라 적갈색, 황갈색, 회갈색 등 5가지 내외로 구분되며, 취소성(알을 품는 성질)이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도 축산시험장은 지난 2007년 7월에 농촌진흥청으로부터 가축유전자원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아 재래닭(황갈색계) 300수, 오골계 50수의 종계를 확보함은 물론 2009년 9월 회갈색계를 수집하여 관리 중에 있으며, 앞으로 백색계통과 흑색계통을 추가 입식하여 계통별로 재래닭을 복원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축산시험장은 지금까지 품종에 대한 계통확립이 없었던 재래닭을 고유 유전자원으로 확보 및 육성하고 이를 기초로 한 고품질의 닭고기를 생산하여 전남도 특산품으로 개발 육성할 계

획이다.

전남도 축산기술연구소 조상신 소장은 “재래닭은 개량종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져 그동안 농가에서 사육을 기피했으나 쫄깃하고 담백한 특유의 맛은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아 개량종과의 차별성을 지켜가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미래 식량자원으로서 보존 육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차단 총력

전라남도 축산기술연구소가 구제역 차단방역을 위해 쉬는 날도 반납하고 비상근무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검사와 차단 방역에도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

전남도 축산기술연구소는 지난 5월 17일부터 6주간 도내 모든 종오리 농장 및 육용오리 농장, 닭 농장(종계·산란계·토종닭)과 재래시장 유통 가금류 등 484농장(개소)에서 7천600건의 시료를 채취해 조류인플루엔자 항원항체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다양한 경로로 유입되는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유입 여부를 미리 살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으로부터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조상신 전남도 축산기술연구소장은 “도내에 구제역과 함께 시가 유입되지 않도록 상시 임상예찰과 항원항체검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며 “축산농가는 축사 내외부를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출입자를 통제하는 한편 방역기관의 AI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에 적극적인 협조 및 의심축 발견 시 신속한 신고 등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 축산기술연구소는 올해 1/4분기동안 오리, 닭 등 8천826건의 AI 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 AI는 유입되지 않았으나 9건의 저병원성 AI를 색출해 적절한 방역조치를 취한 바 있다.

동물복지 존중 친환경 가축사육 환경 확산

전남도가 친환경축산 기반 구축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온 결과 실천 인증농가 비율이 전국의 36%나 차지하는 등 가축 사육환경이 친환경축산을 시작하기 전인 2006년에 비해 월등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위험상태에 있는 구제역과 광우병, AI 등 발생 시 육류 소비에 대한 불안감 확산으로 가격이 떨어져 매번 반복되는 축산농가의 경영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6년 전국 최초로 ‘친환경축산 5개년계획’을 수립 추진해오고 있다.

이어 2008년부터는 가축 본래의 생태가 존중되고 동물복지가 병행된 ‘녹색축산 5개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가축 사육 환경을 자연환경과 버금가는 환경으로 개선시키기 위해 친환경방목축산 육성, 가축 환기시설 개선, 환경개선컨설팅 등을 적극 추진, 가축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면역력이 증강돼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과 같은 각종 질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온 결과 가축의 면역력이 증강돼 각종 질병으로부터 저항력이 늘어났다.

실제로 지난 2008년 전국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가 33건이 발생했으나 전남지역에선 단 1건만이 발생했으며, 구제역 역시 올해 경기 포천 및 인천 강화, 충북 등 지역에서 확산추세에 있으나 전남은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전남도는 또 축산환경이 가축의 질병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해 시급하고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지난해부터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을 통해 친환경축산을 유도하는 한편 사육밀도 해소를 위해 가축사육업 등록기준에 의한 적정 사육밀도를 준수토록 지도하고 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은 지난해 151호 234억원이었던 것이 올해는 210호 266억원으로 늘었다.

항생제가 첨가된 사료 등을 사용하지 않고 소, 돼지, 닭을 사육,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도 지난 2007년 219농가에서 올 3월 현재 1천623농가로 대폭 늘어 전국 인증농가의 36%를 차지하고 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친환경축산물 생산은 가축의 사육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하고 이는 실천농가의 의지가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친환경마인드 함양교육 및 우수농가 견학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친환경축산 분위기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은 46만마리로, 3개월 전보다 4.7%, 1년 전보다 11.1% 증가했다.

한우 산지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른 송아지 입식 증가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시행, 정육점형 식당 증가 등에 따른 국산 쇠고기 수요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돼지는 사료가격 안정과 돼지고기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 호조로 광주의 경우 9,000마리로 3개월 전보다 26.6%, 1년 전보다 34.9% 증가했고 전남은 83만2,000마리로 3개월 전보다 0.2%, 1년 전보다 4.0% 증가했다.

닭은 닭고기 수요가 증가하는 계절적 요인과 계란 가격 안정 등의 영향으로 광주에서 37만마리로 3개월 전보다 301.1%, 1년 전보다 198.4%가 증가했고, 전남에서도 1천5백82만 마리로 3개월 전보다 13.0%, 1년 전보다 22.2%나 늘었다.

반면 젓소의 경우는 원유생산 조절제와 사료비 부담 등으로 광주의 경우 607마리로 1년 전보다 13.4% 감소했고, 전남의 경우도 3만1,000마리로 3개월 전보다 0.1%, 1년전보다 5.1% 각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전남

닭 등 가축 사육마릿수 증가

3월 중 광주·전남지역의 한·육우와 돼지, 닭 등의 사육마릿수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25일 호남통계청에 따르면 3월 중 광주의 한·육우 사육마릿수는 7,000마리로 3개월 전보다 13.0%, 1년 전보다 30.7% 증가했다. 전남

인생은 대수롭지 않은
작은 것들에서부터 시작한다.
좋아하는 일이 있으면 그 일을 붙잡고
즐기고 열심히 하면 된다.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은 처음에는
높은 목표를 세우지 않았다.
지금 손에 쥔 일을 열심히 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었을 뿐이다.

- 마이크 시어스 -